

# 美 홍콩자치권 조사 착수...“中 강력 제재”

###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대응 중관리 자산동결·입국금지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 검토 트럼프 “이번주 뭔가 있을 것”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맞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경고에도 중국 정부가 속전속결 처리 의사를 밝히자 중국 관리의 미국 내 자산동결과 입국 금지는 물론 홍콩이 누려온 특별지위 박탈이란 초강수까지 거론되는 등 미중 양국의 대충돌이 임박한 기류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작년

에 제정된 홍콩인권법에 근거한 홍콩자치권 평가 작업에 곧장 착수할 예정이다. 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에 제재를 가해 중국적으로 중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자 “우리는 지금 뭔가 하고 있다”며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모종의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자는 국무부의 발표가 1주일 안에 나올 수 있다면서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홍콩의 정치적 독립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홍콩을 탄압하려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이들을 인용, 재무부는 홍콩 시민의 자유를 축소하는 새로운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중국 관리들과 기업들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을 요구한 인사들은 그러한 조치가 여전히 검토 아래에 있다면서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제재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와 방법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서명한 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을 평가해 인정할 예정이며, 미국이 무역에 있어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직접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은 중국이 이 법을 제정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

국이 ‘일국양제’ 방침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홍콩 반환 시 자치권을 보장한 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수준의 대중제재 카드를 내밀지 알 수 없다. 다만 당장은 중국 관리와 기업 등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면서 상황에 따라 홍콩의 특별지위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내용도 검토될 것이라는 게 조심스러운 관측이다. 케일리 매케나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홍콩의 금융 중심지 지위 유지에 의문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는 중국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고,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내게 말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 “한국은 어떻게 학교를 다시 열었나”

### WP 등교개학 특뉴스 보도 한국 코로나 방역 노력 소개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단행한 한국의 등교 개학 상황을 사진 기사로 비중 있게 보도했다. WP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판 첫 머리 기사로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한국은 어떻게 학교를 다시 열었나’라는 제목으로 9장의 사진을 실으면서 “이 사진들은 학생과 교사들이 어떻게 이 질병을 막으려 노력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20일 고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이번 주 초중고와 유치원 등이 일제히 등교를 시작했다. 고교 학생들은 3월 개학에도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으나 코로나19 발병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본격적인 등교를 개시한 것이다. 한국 학교의 등교 개학은 코로나19 발병이 지속하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WP 역시 사진 기사로 이를 조명했던 것이다.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주부터 등교에 들어간 각급 학교의 교실과 식당, 수업장면 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전 도안고등학교에서 개별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가 채진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학생들, 칸막이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 중인 학생들,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대구 정화여고 교사들의 모습이 사진기사로 걸렸다. 광주 한 고교 식당에서의 방역 작업 모습과 서울 중대초등학교 책상 위 바구니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 이름표가 담겨 있는 장면과 교내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바닥 표시, 제주의 한 고교에서 마스크를 한 학생과 교사의 수업장면 등도 담겼다. WP는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를 몇 달 전 닫은 후 최근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을 계속해서 급격히 낮추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말 한국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한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300명 안 된다 고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中 전인대 홍콩보안법 압도적 통과 예상...미중 갈등 격화 오늘 전체회의 표결

미중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28일 표결에 부쳐진다.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전인대 표결은 의례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홍콩보안법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보여 미중 간 대립이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역대로 전인대 전체 회의

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경우가 없어 홍콩보안법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울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소개한 바 있다. 28일 홍콩보안법이 의결되면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 시켜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의안 표결과 폐막식 후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 의결에 대한 입장과 대외 전략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1일 개막한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가 두 달 반 만에 열렸으며 회기도 축소되고 기자회견 등도 화상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통

제가 한층 강화됐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중국 경기가 침체하면서 중국 정부는 올해 전인대에서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했으나 최소 1000조원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선 사실상 승리 선언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 공작보고서에 “시진핑 주석의 영도 아래 우한과 후베이의 보위군이 결정적인 성과를 거뒀고 전염병 저지전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 미 경찰에 목 놓린 흑인 사망...수천명 시위

### 행인 만류에도 무릎으로 목 압박

미국의 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당국은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4명을 파면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분노한 수천 명의 시위대가 항의에 나서 경찰과 충돌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는 양상이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강압 체포 행위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이 경찰의 가혹 행위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백인 경찰이 자신의 무릎으로 흑인 남성의 목을 누르고 있고, 흑인 남성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숨을 쉴 수 없어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행인들은 경찰을 향해 남성이 숨질 수 있다며 목을 누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해당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옆에 있던 다른 경찰은 행인의 접근을 막은 채 동료의 가혹 행위를 방치했다. 고통을 호소하던 남성은 이내 코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았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연합뉴스

페이스북에 동영상 올린 시민은 “경찰이 숨을 쉴 수 없다고 울부짖던 흑인 남성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였다”고 경찰의 행위를 성토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위조수표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용의자로 의심되는 흑인 남성을 체포하던 과정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성명을 내놓아 더욱 논란을 키웠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천명의 시민은 이날 현장에 모여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흥분한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물병을 집어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했다가 스타트리본 등 미니애폴리스 현지 언론들을 전했다. FBI와 미네소타 형사체포국(BCA)은 동영상 통해 경찰의 가혹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흑인 남성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당국도 논란이 확산하자 관련 경찰관 4명을 파면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5분 동안 흑인 남성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 제2의 로힝야 사태?

### 미얀마군 마을 방화 의혹

미얀마군과 불교계 소수민족의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는 반군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얀마군이 해당 소수민족 마을에 불을 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얀마군이 수 년 전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저지른 방화와 ‘판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州) 트락우 지역의 렛 까 마을에서 이달 16일 주먹 200여개 및 건물들이 불에 타 파괴된 것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마을 주민 대다수는 불교계 소수민족 라카인족이었다. 5월 16일 오후 2시 13분에 찍힌 위성 사진에 광범위한 화재가 발생했음이 드러나 있다고 HRW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봉쇄조치 풀린 영국 본머스 해변. 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완화되자 26일(현지시간) 본머스의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SGI서울보증, AXA, AIG, NH농협손해보험